



陳映眞 소설 「萬商帝君」의 식민주의 비판 의식

Critical Consciousness About the Colonialism in Chen Yingzhen's "Wan shang Di jun"

저자
(Authors) 송가배
Song Gabae

출처
(Source) [동아문화 52](#), 2014.11, 193-226 (34 pages)
[The Journal of S.N.U. Institute for Asian Studies 52](#), 2014.11,
193-226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Institute for Asian Studies Colleges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39745>

APA Style 송가배 (2014). 陳映眞 소설 「萬商帝君」의 식민주의 비판 의식.
동아문화, 52, 193-226.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182.23
2015/12/30 10:42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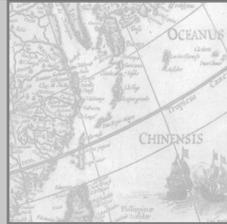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陳映眞 소설 「萬商帝君」의 식민주의 비판 의식

송가배

1. 문제제기
2. 전지구적 자본주의 신시대 식민주의 비판:
陳映眞이 사상의 위기를 겪은 후
3. 대만의 식민주의 정신 구조
 - 3.1. 陳家齊, 劉福金: 수혜자
 - 3.2. 林德旺, 林素香: 피해자
4. 식민주의 비판 및 극복 방안
 - 4.1. 식민주의 비판
 - 4.2. 극복 방안
5. 결어

陳映眞 소설 「萬商帝君」의 식민주의 비판 의식

송가배**

1. 문제제기

최근 대만(臺灣)에서 발표된 박사논문 『陳映眞現象研究』는 현재 천잉전(陳映眞) 문학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만 내부의 분열을 반영한다.¹⁾ 천잉전에 대한 비판의 정점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이 논문은 그 연구의 목적이 “스스로 ‘천잉전 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격하는 방망이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 그 공격의 일례로서 저자는 천잉전의 백색공포에 대한 서사가 “정치적 이상을 위해 소설의 ‘정치화된’ 기억/기교로 문학과 역사, 심지어 가족사까지도 거리낌 없이 ‘도구화’하였다”고 비판하였다.³⁾ 한편 천잉전 연구의 또 다른 축에는 천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1) 陳明成, 『陳映眞現象研究』(台灣國立成功大學博士論文, 2012). 이 논문은 다시 『陳映眞現象: 關於陳映眞的家族書寫及其國族認同』(台北: 前衛出版, 2013)으로 출판되었다.

2) 위의 논문, 8쪽.

3) 위의 논문, 220쪽.

광성(陳光興)을 중심으로 천잉전을 통해 대만의 억눌린 역사에 진입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천광성은 천잉전 문학의 분석을 통해 1950년대 대만 좌익의 활동과 정신세계를 조명한 바 있으며,⁴⁾ 2013년 “뒤안길을 다시 방문하다: 천잉전을 단서로 한 1960년대(重訪後街: 以陳映眞爲線索的一九六〇年代)”라는 주제 하에 일련의 활동을 주도하였다.⁵⁾ 이들은 1960년대 대만의 역사가 국민당 정부에 의해 억압되었다는 전제 하에 천잉전 문학을 일종의 사료로 보고 역사적으로 독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년 활발해지기 시작한 대만—남한 비교 연구의 흐름 속에서, 최말순 등을 대표주자로 한 천잉전과 황석영의 비교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⁶⁾ 남한과 대만의 구조적 유사성이 동아시아적 시야 속에서 백낙청의 “분단체제” 개념을 중심으로 점차 주목되고 개념화되는 가운데,⁷⁾ 작가 및

-
- 4) 陳光興, 「陳映眞的第三世界: 50年代左翼分子的昨日今生」, 『台灣社會研究季刊』第84期(2011. 9) 참고. 이 밖에도 陳光興, 「陳映眞的第三世界: 狂人／瘋子／精神病篇」, 『台灣社會研究季刊』第78期(2010. 6); 陳光興, 蘇淑芬編, 『陳映眞: 思想與文學(上/下)』(台北: 台灣社會研究雜誌社, 2011) 참고. 한편 유사한 입장으로 趙剛의 연구도 참고 가능하다. 趙剛, 『求索: 陳映眞的文學之路』(台北: 聯經, 2011); 趙剛, 『橙紅的早星: 隨著陳映眞重訪台灣 1960年代』(台北: 人間/台社, 2013).
- 5) 이 활동은 대만의 交大亞太/文化研究室, 亞際書院, 清華大學亞太/文化研究中心, 交大社會與文化研究所, 台灣聯合大學系統文化研究跨校學程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다음의 차례로 구성되었다. 1. 六〇年代初期的氛圍(2013. 3. 31), 2. “美國夢”: 以美國新聞處爲中心(2013. 4. 27), 3. 現代主義藝文的發聲和變奏(2013. 5. 25), 4. 初初形成的吶喊——再讀吳耀忠(2013. 6. 22), 5. 劇場雜誌與影像轉譯的年代(2013. 8. 31).
- 6) 崔末順, 「“悠悠’家園”與“忠孝’公園”: 黃皙暎和陳映眞小說的歷史認知」, 『台灣社會研究季刊』第78期(2010. 6).
- 7)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양안 관계에 상호 참조하고 있는 연구는 陳光興, 「白樂晴的超克分斷體制論: 參照兩韓思想兩岸」, 『台灣社會研究季刊』第74期(2009. 6), 대만과 한국의 구조적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백지운, 「동아시아 속의 향토문학」, 『중국현대문학』 제58호(2011) 참고.

작품 비교를 통해 그 유사성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축적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만 내 해석의 분열과 관련, 본고의 초점은 중국과 대만의 통일/독립의 정치적 입장의 차원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천잉전 연구자들의 상이한 해석이 단순히 통독(統獨)의 이분법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본고는 그러한 해석의 분열을 낳은 근본적인 문제, 즉 천잉전의 사상과 문학의 상호작용의 관계에 흥미가 있다. 물론 이러한 흥미는 필자가 국외자의 위치에서 대만 논자들의 정치적 입장에 공감하고, 그것을 참여하게 문제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에서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잉전의 문학과 그에 대한 비평 및 연구는 문학 및 비평과 역사, 문학과 정치의 관계와 관련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천잉전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은 그가 문학을 정치적 목적 하에 도구화했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의견 중 일부의 “문학성”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 심지어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그의 문학 자체를 폄하하는 태도는 물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 중 천잉전의 문학과 사상 간의 관계는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 천잉전이 문학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오류이지만, 분명 그에게 문학은 사고와 실천의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에 속한다. 그는 쉬난춘(許南村)이라는 필명으로 스스로를 비평한 글 「뒤안길——천잉전의 창작 역정(後街——陳映眞的創作歷程)」에서 천잉전이 “대체적으로 사상형 작가에 속하며, 사상적 시야의 지도 없이 창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8) 陳明成, 앞의 논문, 220쪽; 楊小濱, 「批判的主體與主體的批判: 知識分子的反抗與共謀」, 『台灣文學學報』第11期(2007. 12), 13쪽 참고.

말하였다. 실제로 천잉전은 소설뿐만 아니라 다수의 평론을 발표하였고, 1980년대에는 『夏潮』, 『人間』 잡지 등의 실천적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한편 동시에 그는 “창작은 극히 섬세하고 일정 정도의 자주성을 지닌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천잉전의 문학 작품은 그의 평론, 나아가 사상 전반을 철저히 의식하는 가운데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설 창작이 다시 평론을 중심으로 한 사상에 어떠한 제언을 할 수 있는지 역시 탐구할 부분이다.

「만상제군(萬商帝君)」(1982)은 이른바 “문학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작품으로, 천잉전의 문학과 사상의 관계, 그리고 해석을 문제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만상제군」은 「워싱턴 빌딩(華盛頓大樓)」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¹⁰⁾ 천잉전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대만의 정치적·경제적·정신적인 대외 종속화를 반성하고 비판”하였다.¹¹⁾ 그런데 바로 이 선명한 주제 의식과 관련, 뤼정후이(呂正惠)는 작품의 과도한 “지성”을 지적하며 「만상제군」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만상제군」은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경제논문 같고 소설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이 천잉전의 가장 큰 “비극”이다.

-
- 9) 許南村, 「後街——陳映真的創作歷程」(1993), 『父親』陳映真散文集 1: 1976-2004(台北: 洪範, 2004), 68쪽.
- 10) 「워싱턴 빌딩」 시리즈는 「夜行貨車」(1978), 「上班族的一日」(1978), 「雲」(1980), 「萬商帝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인간 소외——“구름” 서문(企業下人的異化——“雲”自序)」에서 「夜行貨車」를 수정하여 이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陳映真, 「企業下人的異化——“雲”自序」(1983), 『鞭子和提燈』陳映真作品集9(台北: 人間, 1988), 30쪽.
- 11) 許南村, 앞의 글, 67쪽.

천잉전의 지성과 예술적 재능이 조화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워싱턴 빌딩」 시리즈 소설이다. 우리는 천잉전의 “경제적 관점”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그것을 소설 속에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아마 천잉전은 “사명감”이 지나치게 심각한 결과, 예술가의 진실됨을 다소 상실한 것 같다.¹²⁾

과연 뒤정후이의 말대로 천잉전의 지성이 작품의 예술성을 손상시켰을까? 만약 그의 논리에 따라 작가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관계를 사고한다면, 「만상제군」에 대한 그의 평가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서 새로운, 그리고 ‘뛰어난’ 예술성의 근거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그 “경제논문 같고 소설 같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뛰어난 예술 작품이라고 재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천잉전의 사상과 문학을 다분히 자의 적일 수 있는 “예술성” 혹은 “문학성”의 잣대 위에서 대립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더 큰 주제 의식 아래 양자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만상제군」의 텍스트는 천잉전의 식민주의에 대한 일관된 비판 의식 아래 그의 사상 텍스트, 구체적으로 평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 가능하다. 천잉전은 20세기 대만의 역사를 관통하는 식민주의의 본질¹³⁾을 그의 전 작품과 평론에 걸쳐 드러냈으며, 「만상제군」은 그 대표적인 글쓰기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1980년대 초 사회주의 혁명

12) 呂正惠, 「從山村小鎮到華盛頓大樓——論陳映眞的歷程及其矛盾」(1987), 『文學的思考者』陳映眞作品集 15(台北: 人間, 1988), 190쪽.

13) 천잉전은 20세기 대만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바로 식민지 반(半)봉건 사회 단계(1895-1945), 반(半)봉건 반(半)식민지 단계(1945-1950), 신식민지 반(半)봉건 단계(1950-1963), 1963년 이래의 신식민지 주변 자본주의(邊陲資本主義) 단계이다. 그에 따르면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봉건주의를 반대하며, 민족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대만 문학 사조의 주류였다.” 許南村, 앞의 글, 66쪽.

이념의 위기 이후 천잉전이 사상적 전환을 진행하는 가운데 식민주의 비판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사상적 맥락 속에 「만상제군」을 위치 짓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문학 공간에서의 식민성에 대한 진단과 세밀한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비판적인 답안 제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문학적 처리에 대한 분석은 항상 천잉전의 사상을 의식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며, 다시 전자가 후자에게 어떠한 제언을 하는지 역시 탐구할 것이다.

2. 전지구적 자본주의 신시대 식민주의 비판: 陳映眞이 사상의 위기를 겪은 후

1970년대 말 1980년초 천잉전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대혁명의 실패와 그에 대한 천잉전 자신의 사상적 변화이다.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말 이후 문혁의 종결, 즉 대륙의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를 접하면서 천잉전은 큰 충격을 받았다.¹⁴⁾ 좌익 지식인 천잉전에게 있어 대륙의 사회주의 혁명 실천이 그의 사상, 구체적으로 국민당 정부 비판, 중국민족주의, 나아가 그의 이상주의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이었다고 할 때, 그가 느꼈을 위기감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는지 상상 가능하다.¹⁵⁾ 그런데 그는 충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80년대 문학과 비평, 잡

14) 사회주의 위기 직후 천잉전의 심정은 陳映眞, 「答友人問」(1976), 『鷲山』 陳映眞作品集 8(台北: 人間, 1988) 참고.

15) 허자오토텐(賀照田)은 천잉전이 중국 대륙 사회주의 실천에서 그 자신의 이상주의와 중국민족주의, 생활과 생명의 의미, 공정과 정의, 민주를 길을 찾았다고 보았다. 賀照田, 「陳映眞20世紀80年代的思想湧流析論(一)」, 『開放時代』(2010. 11), 68쪽.

지 창간을 통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시점 사이에서 천잉전은 어떻게 사상의 전환과 재건을 이뤄냈을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허자오텐(賀照田)은 이 시기 천잉전의 사상적 전환과 재구성을 분석한 글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¹⁶⁾ 허자오텐은 1980년대 천잉전의 사상이 “샘솟았다(湧流)”고 표현하며, 그 구체적인 사상적 자원으로 민중적 중국민족주의, 기독교, 그리고 간디를 분석한다.¹⁷⁾ 특히 그는 천잉전 사상을 “이상주의”라고 명명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 이후 그것이 “사랑”과 “희망”으로 재건되었다고 정리한다. 즉 「만상제군」이 창작된 시기인 1980년대 초 식민주의에 대한 천잉전의 인식은 바로 중국민족주의와 기독교, 제3세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세 요소가 1980년대 천잉전의 사상 세계에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만상제군」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 장에서는 이 시기 천잉전의 사상 텍스트 중 서문과 비평문을 검토함으로써, 식민주의 인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賀照田, 위의 글; 賀照田, 「陳映眞20世紀80年代的思想湧流析論(二)」, 『開放時代』 (2010. 12)(<http://www.opentimes.cn/bencandy.php?fid=170&aid=893>, 검색일: 2014. 10. 19).

17) 허자오텐은 민중적 중국민족주의에 관해서는 천잉전의 「答友人問」을, 기독교는 「台灣長老教會的歧路」(1978), 「基督徒文字工作者的社會責任」, 「主,我們這樣子就可以嗎?——“一九九〇年平安禮拜”的隨想」, 간디는 「自尊心和人道愛——電影“甘地傳”觀後的一些隨想」(1983)을 인용해 분석하고 있다. 허자오텐(二)(2010. 12) 참고.

18) 한편 이시기의 제3세계 시야는 앞의 두 가지 요소에 포함되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3세계와 관련된 천잉전의 글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薛毅 編, 『陳映眞文選』(北京: 三聯書店, 2009)에 실려 있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中國文學和第三世界文學之比較」(1984), 「反諷的反諷——評“第三世界文學的聯想”」(1984), 「尋找一個失去的視野」(1991), 「中華文化和台灣文學」(2006), 「對我而言的“第三世界”」(2005).

20세기 대만 현대사를 “식민”이라는 결코 끝나지 않은 현실로 파악한 천잉전의 식민주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 당시 강렬한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옥중에서 따오위다오(釣魚島) 운동의 소식을 접한 후, 1975년 출옥해 발표한 소설 「첫 번째 출장(第一件差事)」 제4판 서문 「희미한 등불을 품에 안고(懷抱一盞隱約的燈火)」에서 천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문화적으로 대만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결과 “자아 정체성의 상실”이 발생하였다고 비판한다.¹⁹⁾ 여기서 나아가 향토문학 논쟁에서 발표된 글들에서 그의 식민주의 비판 의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문학은 사회로부터 와서 사회를 반영한다(文學來自社會, 反映社會)」(1977)에서 그는 전후 30년 간 대만 사회가 줄곧 경제적·문화적으로 “서구화”를 추구했다고 지적한다.²⁰⁾ 그에 따르면 대만의 국민 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놓여 왔다. 그는 특히 문화적 차원의 서구화를 강조하는데, “문화적·정신적으로 서구에 종속화·식민지화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30년간 정신생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역설한다.²¹⁾ 그는 문화적 식민화의 예로 외국 교과서의 번역과 외국, 특히 미국 박사 학위의 범람을 제시한다.²²⁾ 이러한 시각 하에 그는 당시 황춘밍(黃春明), 왕정허(王禎和) 등의 작품 활동이 “서구의 영향이 대만 사회에서 경제적·문화적인 지배 위치를 갖는 것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서양과 동양의 문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의미를 지닌다”²³⁾라고 평가한다. 그는 「민족

19) 陳映眞, 「懷抱一盞隱約的燈火——遠景“第一件差事”四版自序」(1977), 『鞭子和提燈』陳映眞作品集 9(台北: 人間, 1988), 24쪽.

20) 陳映眞, 「文學來自社會, 反映社會」(1977), 『仙人掌』(1977. 7). 본고에서는 薛毅 編, 앞의 책, 103쪽을 참고.

21) 위의 글, 106쪽.

22) 위의 글, 104-105쪽.

23) 위의 글, 110쪽.

문학의 풍격을 세우자(建立民族文學的風格)(1977), 「민족 문학의 기치 아래 단결하자(在民族文學的旗幟下團結起來)」(1978)의 글을 연달아 발표하며,²⁴⁾ 반(反)식민, 반(反)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자립 자강과 민족 해방, 그리고 민족문학의 설립을 주장한다. 요컨대 그는 정신적·문화적 식민 상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고, 민족문학/문화의 건설을 시급한 과제로 본 것이다.

그의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 비판은 당시 대만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도 맞물려 있다. 천잉전은 「대만 장로교회의 기로(台灣長老教會的歧路)」(1978)에서 대만 기독교 및 종교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며, 제3세계의 시야에서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⁵⁾ 이 글은 당시 미국과의 단교로 인한 대만의 외교적 고립 속에서 1977년 8월 16일 대만 기독교 장로교회가 발표한 「인권선언(人權宣言)」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로교회는 「인권선언」에서 “정부가 유효한 조취를 취하여”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할 것을 호소하였으며,²⁶⁾ 이후 재차 성명을 통해 대만 독립[台獨]과는 무관함을 밝혔다.²⁷⁾ 이 글에서 천잉전은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후진 국가——“19세기 동서양 제국주의 통치 하의 식민지였던 곳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²⁸⁾——의 교회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24) 이 두 글은 각각 『仙人掌』(1977. 7), 『仙人掌』(1978. 8)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陳映眞, 『中國結』陳映眞作品集 11(台北: 人間, 1988)에 실렸다.

25) 陳映眞, 「台灣長老教會的歧路」(1978), 『夏潮』(1978. 6). 본고에서는 薛毅 編, 앞의 책을 참고.

26) 위의 글, 209쪽.

27) 위의 글, 210쪽. 1978년 3월 31일 대만 기독교 장로교회는 「台灣基督教長老教會澄清有關對“人權宣言”之誤解」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28) 위의 글, 219쪽.

에 따르면 대만 장로교회로 대변되는 현대 신학, 즉 참여신학²⁹⁾은 기존의 교회가 식민 세력을 포함한 권력층과 결탁해온 것을 비판하는 반(反)제국적·반(反)식민적 정신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이 제3세계의 억압받고 모욕당한 민중의 편에서 단순히 그들의 위로품이나 정신적 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부당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천잉전의 주장이다.³⁰⁾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천잉전의 식민주의 비판은 중국민족주의의 목표 및 제3세계 참여신학의 주장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식민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그것을 식민 세력, 특히 미국 식민과 일본 식민의 정신적 식민화로 인해 본토 문화를 결여하고 자아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정리 위에 식민주의적 사고가 갖는 보편적인 특징이 피식민자가 스스로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 심성 상태라는 일반적 사실을 더할 필요가 있다.³¹⁾

이상의 천잉전의 글들은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 하의 식민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시기 창작된 「만상제군」은 평론의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보완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 작품은 식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식민화된 개인의 정신 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답하고 있고, 동시에 식민화의 극복

29) 趙剛은 「만상제군」에 언급된 서적 *Church And Asian People*을 근거로 등장인물 치웅(瓊)의 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내용은 趙剛, 「青年陳映眞: 對性、宗教與左翼的反思」, 臺灣國立交通大學「陳映眞思想與文學學術會議」論文集(紅皮本)(2009. 11. 21~22), 119쪽, 허자오텐(二)(2010. 12)에서 재인용.

30) 陳映眞, 「台灣長老教會的歧路」, 薛毅編, 앞의 책, 213-217쪽.

31) 위르겐 오스터함멜 지음, 박은영·이유재 옮김, 「식민주의」(서울: 역사비평사, 2006), 173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작품의 내용과 구조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안을 미리 언급하자면 천잉전이 말하는 “사랑”과 “희망”일 것이다.³²⁾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분석하여 식민화된 정신의 실체와 그 극복의 문제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3. 대만의 식민주의 정신 구조

3.1. 陳家齊, 劉福金: 수혜자

천자치(陳家齊)와 로혹김(劉福金)³³⁾은 모핏 앤 무어(Moffitt & Moore) 회사의 매니저로서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며 대만이 전세계의 구매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³⁴⁾ 이들에게 있어 피터 드러커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 예를 들어 천자치는 매우 분명한 국제적 목표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대만으로부터 전지구라는 무대로 뻗어나가 일하고 성취

32) 천잉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답은 사라졌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문학과 예술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사랑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을 남겨 놓았다. 그리고 사랑과 희망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길고 험난한 산길과 외롭고 어두운 밤을 지나 마침내 진리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陳映眞, 『企業下人的異化: “雲”自序』, 『鞭子和提燈』 陳映眞作品集 9, 30쪽.

33) 로혹김은 “劉福金”의 대만이 발음으로, 그는 자신이 대만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132-133쪽). 그리고 그 이름의 이니셜이 H. K. Lau이기 때문에 “홍콩출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129쪽) 이하 작품 인용의 출처는 모두 본문 혹은 각주의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陳映眞, 『萬商帝君』 陳映眞小說集 4(台北: 洪範, 2001)를 참고하였다.

34) 이 작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凡勞苦背重擔的人, 2. ROLANTO, 3. 花草若離了土, 4. 荒蕪的河床, 5. 小天使, 6. 彼德·杜拉卡.

하는 것”이다(150쪽). 그에 따르면 대만은 “현대 시장의 동일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만”은 이미 출현하였다(167쪽). 로혹킴 역시 그와 유사한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욕망과 신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들 간의 차이는 본성인(本省人)과 외성인(外省人)의 신분에서 발생한다. 로혹킴은 본성인으로서 대만 분리주의의 입장 하에 당외(黨外)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연히 대만인은 중국인이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한다(147-148쪽). 상해 본적의 외성인으로서 천자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종족의 감정과 애국 충정”(149쪽)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그것이 “위험한 사상”(149쪽)이라고 생각할 뿐 감히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한다. 이들의 긴장된 관계는 1980년대 선명해지기 시작한 성적(省籍) 모순과 통독(統獨) 문제를 반영한다. 그런데 서술자는 이들 간의 모순을 잠깐만 비춰줄 뿐, 반(反)제국주의·반(反)식민주의 입장에서 양자를 다른 회사 매니저와 동일하게 비판의 시선으로 대한다.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의 서술자는 이들 매니저의 허위와 자기 기만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사실 그들이 관리 기술에 도취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합리주의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신시대의 궁전의 예의와 같기 때문이었다. 이 예절을 배우고 나면 젊은 매니저들은 신시대의 귀족처럼 신시대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다 보면 부크맨(Buchmann) 선생이 말하는 “세계관리자”의 보좌에 이를 것이다.

(…) 이 세미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제 막 회사에 온 “홍콩출신”이 강사를 맡은 데에 대한 불만은 부크맨 선생의 연설 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세계관리자”를 자처하는 흥분과 엄숙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기대가 점차 대만 모뎀 앤 무어 회사의 매니저 사무실들을 가득 채웠다(135쪽).

3.2. 林德旺, 林素香: 피해자

린더왕(林德旺)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관리와 통제를 받는 제3세계의 인민이다. 문제는 린더왕 자신이 “세계관리자”의 행렬에 가담 하길 열망하여, 자본주의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가 되기를 꿈꾼다는 점이다. 하지만 린더왕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작품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인물로 전락한다. 작가는 그의 모순된 정신 상태에 대한 묘사를 통해 비판적인 제3세계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견 린더왕이 고통 받는 원인은 그 자신이 회사에서 중용 받아 매니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 개인적 상황이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그 자신이 처한 정신적 식민 상태에 있다. 그는 자본주의와 다국적 회사의 부유함 및 생활양식을 숭배하고, 외국과 매니저를 숭배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이 태어난 시골과 그곳의 문화를 부정한다. 린더왕에게 있어 모핏 앤 무어 회사의 “에어컨, 양탄자, 아름다운 사무용 책상과 의자, 아름다운 사람들”은 바로 “성공과 출세의 상징”(141쪽)이다. 린더왕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대만 모핏 앤 무어 회사의 깨끗하고 고풍조차도 그렇게나 우매하고 혼란스러우며, 불결하고 낙후한 것으로 보였다.”(185쪽) 그렇기 때문에 린더왕은 단순한 업무 보조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국적 회사의 상층부에 진입해 한 명의 “Manager”³⁵⁾가 되어 전세계를 관리

35) 그에게 “Manager”라는 영어 표기와 명칭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중국어화된 “마네자(馬內夾)”와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Manager”——세계관리자이기 때문이다.

하고자 한다. 그의 “국제성”에 대한 승배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때 최고조에 달한다.

“사실 말이야, 누가 알겠어, 내가 어느 집 자식인지? 더는 속이지 말라구, 에이!” 그러다가 또 속절없이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 “난 당연히 그 뒤떨어진 데다가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곳에 속하지 않아. 하...” 그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I am, I am different!” 그는 마침내 한 마디 서툰 영어를 내뱉었다. “I am, I am...”(201쪽)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는 서툰고 더듬거리는 영어이다. 이러한 자기 부정과 타자화가 바로 그의 정신적 식민의 비극성을 비춰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타이베이의 소위 고상한 생활 방식——예를 들어 새로운 옷과 괜찮은 집, 오디오 등——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누나 린수향(林素香)에게 끊임없이 손을 벌렸다. 그는 누나의 돈이 바로 그가 혐오하고, 문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절의 영매(乩童) 일을 해서 벌어들인 것이라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린더왕은 자신이 “문명”이라 생각하는 다국적 회사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끝내 그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마침내 정신병이 발작하고 만다.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가 린더왕을 초점화자로 하여 그의 정신 내부를, 특히 병이 발작하여 점차 악화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병은 사실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천잉전의 문학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중요한 주제이다.³⁶⁾ 「만상제군」 속의 광기 혹은 정신병에 대한 정의는 천잉전의 초기 단편 「처참하고 말 없는 입(淒慘的無言的嘴)」(1964)에서 등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병 환자는 모두 사회의 피해자이

36) 이와 관련된 연구로 각주4의 陳光興, 「陳映真的第三世界: 狂人/瘋子/精神病篇」참고,

며,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의 경계 역시 매우 모호하다.³⁷⁾ 다시 말해 천잉전의 광기는 단순히 개인의 정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검토할 부분이 바로 린더왕이 스스로 병의 발작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기나긴 과정에 대한 묘사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식이 아직 또 렷할 때 온몸의 힘을 다해 눈앞에 닥친 위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년 시절 강제로 입원하기 전 그 심원처럼 어두웠던 나날들이 반복되는 걸 말이다. (……) 그는 약국으로 걸어 들어갔다. (……) 하늘이시여,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든 제가 다시는 그 가없이 어두웠던 나날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178-180쪽)

하지만 결국 린더왕은 약을 통해 정신병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그 후 다시 작품 속에 등장했을 때, 로혹김의 시점에서 기록된 그는 모핏 앤 무어 회사의 국제회의에 봉두난발로 난입해 자신이 신임을, “만상제군(萬商帝君)”임을 큰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상의 세밀한 묘사는 정신병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린더왕은 그러한 맥락을 사고하지 못한다. 그의 치료 동기는 정상인이 되는 것으로, 그는 사회의 주류적 관념에 의해 규정된 정상성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 대해 강렬한 수치심을 느낀다. 일례로 그는 회사의 세미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한 후 큰 수치심을 느낀다.³⁸⁾ 이 같은 수치심의 정서는 반복해서 출현하는

37) 陳映眞, 「淒慘的無言的嘴」(1964), 『我的弟弟康雄』 陳映眞小說集 1(台北: 洪範, 2001), 210-211쪽.

38) “Bobbie루랑 Lingo린 같은 자식들까지 모두 참가했다. 그는 매우 수치스럽고 괴로웠다.”(136쪽)

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한다.³⁹⁾ 이때의 수치심은 린더왕의 정신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사실 그의 수치심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자본주의 질서 하에 진행된 식민주의적 현대화와 관계가 있다. 선진국과 제3세계 사이의 권력 관계가 전이되어 국내의 도시—농촌 관계에서 재생산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식민화된 정신세계 속에서 린더왕은 자신의 고향——농촌을 타자화하고, 그러한 “황폐한” 농촌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한다. 제4장 “황폐한 강바닥(河床)”에서 그는 고향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악몽에 시달린다.⁴⁰⁾

그래서 그는 또 이러한 꿈이 생각났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몹시도 화가 난 채로 고향 통뢰(銅羅)⁴¹⁾의 메마른 강바닥을 내달렸다. 강바닥 위의 단단한 돌이 발을 찢어왔다. 햇볕에 달궈져 불처럼 뜨거웠다. (……)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렇게 화가 난 채 고집스럽게 달렸다. 오로지 이 황폐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고향의 강바닥을 달려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강바닥 전체가 마치 운전대 마냥 천천히 회전하면서 그의 힘을 다 빼놓았다. 그는 어떻게 해도 그 악의에 찬, 후텁지근하고 어지러운,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강바닥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다(194쪽).

린더왕의 정신세계 속에서 그의 고향——농촌은 문명인 도시, 특히 다

39) ”국제회의는 그만을 문 밖에 남겨 놓았다. 그는 가장 큰 수치심을 느꼈다.”(190쪽).

40) 한편 고향을 “악몽”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전지구적 식민주의의 시점과 별개로 천영전 자신의 유년기 고향 경험과도 관계가 있다. 그는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된 후 가세가 기울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경험은 초기 단편 「故郷」(1960)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천영전 자신의 설명은 陳映眞, 「試論陳映眞——“第一件差事”, “將軍旅”自序」(1975), 『鞭子和提燈』陳映眞作品集 9(台北: 人間, 1988), 3-5쪽 참고.

41) 銅羅는 대만 마오리현(苗栗縣) 남단에 위치한 향(鄉)이다.

국적 회사와 대조되는 낙후한 곳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하의 문화적 식민주의가 투영된 것이다. 린더왕 자신은 식민성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과 그 문화를 부정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악몽과 같은 표면적인 증상에 의해 고통 받고 있을 뿐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본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기이한 형태의 “만상제군”이 되어 버린다. 무단결근을 한 린더왕을 찾아온 회사 동료 리타리우(Rita劉)는 그의 빈방에서 그가 그린 초상화를 발견하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찬 남자의 그림으로, 하단에는 린더왕의 필체로 “제군태자 린더왕 초상화(帝君太子林德旺繪像)”라고 적혀 있었다(220쪽). 린더왕은 평소 그림 실력이 꽤나 뛰어났지만, 그 자화상은 “양쪽으로 약간 치켜 올라간 눈썹을 제외하고는 조금도 린더왕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221쪽) 이처럼 린더왕은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부정에 기반을 둔 정체성은 진정한 주체를 낳을 수 없다. 린더왕이 “만상제군”이 된 광기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상상 천자치의 호령에 굴복하는 모습이 바로 그 비극적인 증거이다.⁴²⁾

4. 식민주의 비판 및 극복 방안

4.1. 식민주의 비판

식민주의에 대해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비판적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작가는 린씨 남매를 통한 직간접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42) “신기하게도 그 남자는 천자치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한 마리 양처럼 순종하며 경비와 호텔 매니저에게 끌려 나갔다.”(235쪽).

먼저 작가는 린수샹이라는 인물의 대사를 이용한다. 린수샹은 린더왕이라는 초점 화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녀의 비판적인 인식과 발언은 이 소설 그 누구보다도 핵심을 꿰뚫고 있다.

린수샹은 도교 사원의 영매로서, 소위 국제화된 도시인들의 눈에는 전통적이고 비과학적인,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린더왕은 고향의 도교사원이 성황리에 건물을 확장하는 것을 보고는 이 고향이 타이베이와 달리 우매하고 혼란스러우며, 불결하고 낙후되었다고 생각한다(185-186쪽).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린수샹이 유일하게 전지구적 식민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대만이 제3세계로서 착취당하고 있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인은 외국을 숭상하는 세태를 비판한다. 그녀는 린더왕에게 말한다.

“외국인이면 곧 고등한 거니?”(185-186쪽)

“외국인한테 대만은 시골 같은 거야. (……) 술 몇 잔 들어가면 일본인, 미국인 다 똑같이 추해!”(185쪽)

앞서 린더왕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모른 채 그 표면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것과 달리, 린수샹은 그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타이베이의 고상한 삶을 유지하게 위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려 고향에 돌아온 린더왕을 보며, 린수샹은 다음과 같이 혼잣말하듯 읊조린다.

“화초가 땅을 떠나면,” 그는 누나 수샹이 마루에서 노래 부르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가려무나.”

(……)

“아무 것도 아니에요. 화초가 땅을 떠나면,” 수상이 미소지으며 말했다.

“시들고 말지요.”(188쪽)

린수상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녀의 말이 예언으로 작용한 것처럼 린더왕은 곧 정신적인 황폐함과 정신이상을 겪는다. 린더왕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고향의 “황폐한 강바다”를 떠나려고 한 결과, 그는 결국 말라 죽은 화초마냥 정신이상이 발병해버렸던 것이다.

작가의 비판적인 주제 의식은 린수상의 직접적인 대사 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전달된다. 「만상제군」의 인물은 앞서 분석했듯이 수혜자와 피해자, 혹은 사회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작품 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자 중요한 사건을 겪은 후 마지막 6장에서 상호 교차한다. 상층은 국제회의를, 린더왕은 정신병 발작이라는 사건을 통해 각각 국제화되었다. 즉 세계관리자와 만상제군이 되었다. 이 같은 두 계층의 대립 및 교차하는 정신적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 있다.⁴³⁾ 소설의 구조상 제4장 “황폐한 강바다”과 제6장 “Peter Drucker”는 대립 및 긴장 관계에 있으며, 상호 참조의 분석을 통해 비판적인 주제 의식을 구성해낼 수 있다.

천자치와 로혹김은 회사 내에서의 경쟁 관계와 성적(省籍) 갈등으로 인해 대립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국제회의 후 이들은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세계관리자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피터 드러커에 대한 공통된 신

43) 한편 이 같은 두 계층의 교차는 자본주의와 제3세계 시각의 교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국제주의의 두 가지 힘을 분석한 아마드의 논술과 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좌파의 전통적인 국제주의 전통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제주의가 부상하였다. Aijaz Amad, “Literary Theory and Third World Literature: Some Contexts”, *In Theory: Classes, Nations, Literatures*, London; New York: Verso, 1992, 45쪽 참고.

봉 하에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⁴⁴⁾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 이들은 대만과 민족으로부터 벗어나 함께 신민족·신종족으로 진입한다. 바로 “국제인”이 된 것이다.

천자치는 “국제적 마케팅 인간”(國際的行銷人’——global marketing ma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세계관리자의 개념”을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해 전통과 가정에 기초한 민족 국가의 신념으로부터 점차 해방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미야자와(宮澤)는 조용히 웃으며 수긍했다.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족주의는 일찌감치 대중적 소비 문화의 등장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며 말이다(233쪽).

(로의 일기) 나는 반드시 이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대만”으로부터 “국제”적 시야로 걸어 나가야 한다! (……) 나는 반드시 대만인에서 국제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나는 새롭고도 영리한, 이 세계에 더욱 좋고 풍성한 생활을 창조하는 민족과 인종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Global Manager! Global Marketing Man! 이것은 정말이지 종교적인 순간이다!(244쪽)

이 같은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 확인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에 그치지 않는다. 로훅김의 국제적 정체성은 그의 무의식의 영역에 깊게 새겨져 있다.

(로의 일기) 라오캉이 말했다. “대만 1700만 인민의 이념과 정치·경제 제도는 도무지 중공과 맞지 않아요. 강제로 합병한다면 필시 무서운 비극을 야기할 겁니다.” 어찌다가 “강제 합병”까지 말하게 되었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이상하다! 나의 첫 반응은, 강제 합병이 된다면 대

44) (“중국은 반드시 강하다!”라는 구호를 듣고서) “맹목적인 민족주의야!”(251쪽)

만 모뎀 앤 무어는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이었다. 나는 응당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그럼 대만인은 어찌지? 라고. 왜 그 순간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239쪽).

로혹킴의 이러한 무의식적 반응은 그에게 있어 세계관리자의 정체성이 국가나 민족보다도 더욱 중요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로혹킴이 천자치와 함께 “맹목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함께 “국제인”이 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쳐버린 린더왕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것은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로의 일기) 천자치가 Peter Drucker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니 정말이지 뜻밖이었다. 이 녀석, 꽤 괜찮군! 우리는 거울 속에서 마주보며 웃으며, 젊어서 관리학을 모르는 동료들이 가득 탄 차를 안개 속에 남겨둔 채로 떠났다. 그런데 이때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를 “만상제군”이라 칭하였던 청년의 수척하고 우울한 얼굴이 갑자기 눈앞을 스쳐지나, 겨울철 타이베이의 어두운 하늘 속으로 사라져갔다(252쪽).

로혹킴의 일기에서 린더왕이 회의장에 난입했던 때의 기록을 보면, 천자치는 자신의 부하였던 그를 모른 척 하고 그저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있다(234쪽). 로혹킴 역시 천자치와 암묵적인 눈빛을 주고받으며 린더왕을 낯선 광인으로 취급한다(237쪽). 이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가까워져, 함께 “국제인”이 되는 계기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로혹킴의 일기에서 린더왕의 소위 “작은 사고(小意外)”는 “한 가지 기록해둘 만한 에피소드”로 취급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날의 식사 메뉴가 나열된다. 즉 로혹킴 등의 세계관리자에게 린더왕은 그저 하루의 메뉴와 등가인 존재일 뿐이다(234-236쪽).

그렇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왜 로혹킴은 자신도 모르게 린더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 이 의미심장한 결말은 로혹킴 등이 세계관리자로서 “국제인”이 되는 것이 린더왕의 “만상제군” 되기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이 소설의 줄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관리자가 되는 과정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린더왕의 경우에는 “만상제군”이라는, 사회적 시선으로는 광기인 형태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만상제군”이 되어 회의장에 나타난 린더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만상제군은 너희들에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왔다. (……) 너희들은 전 세계와 통상하되, 풍속을 해치지 말 것이며 재물을 사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246쪽) 이 말은 로혹킴 등이 주장하는 기업의 목표를 위해 일하고 세계를 개선하자는 내용과 본질적으로는 일치한다. 또한 린더왕 자신이 신이 되었던 것처럼, 로혹킴 등도 관리 이론과 피터 드러커를 하나의 종교로 숭배했다. 로혹킴은 블랙웰(Blackwell) 교수의 교차문화(cross-culture)와 성공적 마케팅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국제인”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이지 종교적인 순간이다!”(244쪽)라고 외쳤다. 로혹킴과 린더왕의 차이는 단지 그 이론의 정교함의 정도와 사용 언어——국제언어(영어)와 방언(민남어)——의 차이일 뿐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주류에 의해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결국 정신적 식민화의 고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린더왕이 로혹킴과 오버랩되는 것은, 후자의 “국제주의” 역시 피식민화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로혹킴의 회의 기록을 비롯해 「만상제군」에서 대화와 인용 형식으로 등장하는 세계관리 이론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녔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이 “경제논문”과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⁴⁵⁾ 그러나 그 객관적인 지

45) 각주 12 참고.

식의 전문성은 오히려 작품 속에서 이들 화이트칼라의 정신적 식민화를 폭로하는 문학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로혹킴의 논문과 같은 전문적인 쓰기 방법은 린더왕의 “광인”의 서술처럼, 서술자(내지 초점화자)의 의식을 넘어서 그 서술 자체를 비판할 수 있게 한다. 린더왕의 정신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은 그 진실성을 의심케 하며, 독자가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린더왕과 같은 “광인”의 서술이 오히려 독자를 현실의 억압된 진실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혹킴의 학술적인 일기 역시 린더왕의 광기와 마찬가지로 이들 화이트칼라의 정신세계를 엄폐하는 방해물이다. 독자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까지도 말이다. 로혹킴의 성격은 그가 개인적인 일기조차 논문처럼 쓰게 만들었다. 세끼 식사 메뉴와 양탄자 색깔까지 기록할 정도로 말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의 범람 속에서 그의 정신세계, 즉 모순과 기만의 정신세계는 적절히 은폐된다.

천자치 등이 소위 세계관리자가 되어 민족을 넘어서 “국제인”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순과 기만이 드러난다. 사실 그들은 민족이라는 범주와 신분을 진정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있을 따름이다. 작품 속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이들의 도피와 기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천자치는 한 때 로혹킴과 대만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중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로혹킴의 발언, “그들 중국인(中國人)은 정말 대단해, 대단하다구…….”(166쪽)에서의 “중국”과 천자치가 말하는 “전통적인 중국의 방식”(167쪽)의 “중국”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그렇다면 천자치 등이 “중국은 반드시 강하다!”(251쪽)라는 학생들의 구호를 “맹목적인 민족주의”라 비판했을 때, 그 자신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내용일까? 이처럼 “중국”이란 단어에 대해 다양한 의미가 경쟁하고 있다. 또한 “중

국”이라는 기표와 1980년대 이후 분리주의가 부상한 “대만”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에 대해 천자치 등의 “국제주의”는 어떠한 답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만의 정체성과 양안 관계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로훅킴의 새로운 신분인 “국제인” 역시 땅을 떠난 화초처럼 시들게 될까?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로훅킴의 “국제인” 속에 린더왕의 “만상제군”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가 무의식의 순간적인 단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때문이다. 그 역시 미래에 린더왕처럼 정신적 식민화로 인해 자기 부정과 분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여기 암시된다. 로훅킴은 대만의 “강제 합병”에 대해 자신의 첫 반응이 왜 그러한 것이었는지, 천자치와 함께 “국제인”이 되어 민족주의를 뒤로 하고 떠나는 그 희망적인 순간에 왜 수척하고 우울한 린더왕의 얼굴을 떠올렸는지 알지 못한다. 그 역시 진정한 주체가 아닌 것이다.

4.2. 극복 방안

식민주의에 대한 작가의 형상화와 비판 의식은 이상의 글처럼 정리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그에 대한 대안 역시 제시되었는가? 앞서 린수샹의 “화초가 땅을 떠나면 말라 죽게 된다.”는 발언은 향토로 회귀해야 한다는 방법을 암시한다. 그런데 만약 린수샹이 말하는 향토가 린더왕의 “악몽”화된 고향이라면, 과연 향토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한 답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실 린더왕은 오로지 다국적 기업과 도시의 삶의 부작용 때문에만 정신병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어릴적 고향에서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178-180쪽).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향에 돌아가는 것만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즉 어떠한 “향토”이어야

하는가가 문제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이상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천잉전이 역설한 바 있는 “사랑”과 “희망”의 가치와 관련된다.⁴⁶⁾ 구체적으로 작품속에서 린더왕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천자치의 비서 리타리우는 기독교 신앙에 곤혹감을 느끼게 되고, 제3세계 시야의 참여신학을 주장했던 옛 친구 치웅(瓊)을 회상한다. 리타리우와 치웅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천잉전이 대만 장로교회를 지지하면서도 비판하는 이중의 입장을 반영한다.

리타리우는 린더왕이라는 계기를 통해 대만 기독교에 대해 깊이 회의한다. 독실한 신자 리타리우가 기독교에 대해 회의하게 되는 계기는 린더왕의 고통과 정신병 발작에 대면했을 때이다. 그녀는 기독교 신자의 자애로운 마음으로 린더왕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복음 전단을 주었다. 그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을 때는 그의 집을 방문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끝내 그녀는 자신에게 익숙한 기독교 신앙으로는 린더왕을 이해할 수도, 도울 수도 없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곤혹감은 그녀가 린더왕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린더왕이 말했다는 “마내자(馬內夾)”에 대해) 그녀는 그 여인의 억양을 거친 “馬內夾”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번 늘 그녀가 주는 복음 전단을 예의 바르게 받던 린더왕의 웃는 얼굴이 생각났다(219쪽).

(주님께)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오로지 느낌에만 의지해 발견한 린더왕의 비참함과 고통의 의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딱 마주 잡은, 기도하는 손이 차가워져 왔다. 그녀의 가슴이 무언가에 막힌 것 마냥 답답하게 느껴졌다. “오, 주

46) 각주 32 참고.

여…….”(……) 그녀는 말없이 침대에 앉았다. 이웃집 아이가 무엇 때문인지 분해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로서는 드물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경청해주시지 않는 기도란 걸 깨달았다.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그녀는 문득 치웅의 말이 생각났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들은, 우리들 이곳의 교회와 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야.”(221쪽)

이처럼 “이해하지 못함”의 상태가 부각되는 가운데 리타리우로 대변되는 대만 기독교에 대한 천잉전의 비판이 명백해진다. 바로 교회 밖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 비판이다. 치웅, 즉 대만 기독교를 비판하고 개종하여 천주교 수녀가 된 그녀를 등장시키는 것 역시 같은 의도에서이다. 또한 그녀가 리타리우에게 언급했던 책인 『변동하는 사회 속의 교회(變動社會中的教會)』, 『교회와 아시아 민중(*Church and Asian People*)』(215-216쪽)은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의 요구를 반영한다. 즉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현실을 비판하는 제3세계의 시야이다. 리타리우가 곤혹감 속에서 치웅을 그리워하며 끝나는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은 참여신학에 대한 명확한 지향을 나타낸다.⁴⁷⁾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리타리우와 치웅을 통해 제시된 참여신학이라는 답안이 천자치 등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수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이다. 천자치 등의 식민성은 부분적인 풍자와 린더왕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비판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답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다국적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바,⁴⁸⁾ 천잉전은 기업의 관리이론을 소위 “경제논문”이라 불릴 만큼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술 부분과 리타리우가 초점 화자인 제5장 “작은 천사(小天使)”

47) 趙剛은 남미 해방신학이라고 해석한다. 주 29 참고.

48) 천잉전은 다국적 기업인 미국 파이저 및 윈저 제약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는 어떠한 관계인가? 천자치는 리타리우의 상사이지만, 함께 일하는 것 외에는 그녀와 대화조차 거의 나누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리타리우의 존재감은 그녀의 타이핑 소리뿐이다. 이야기의 핵심축 중 하나인 천자치 등이 “민족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인이 되는” 것과 리타리우의 기독교는 어떠한 관계인가? 리타리우의 참여신학이 린더왕을 포함한 제3세계 민중을 구하는 방법이라 한다면, 리타리우는 바로 그 억압자인 자본주의의 식민주의적 전지구 체제, 그리고 그 공모자이자 또 다른 피식민자인 천자치·로혹킴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일단 이들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도 천잉전의 기독교적 관심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일례로 다국적 기업의 일상을 자세하게 보여준 제1장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凡勞苦擔重擔的……)”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가져온 것이다.⁴⁹⁾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자본주의 비판의 사상은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갖고 있는가?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사상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가? 작품 속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당시 소설 밖의 언술에서 천잉전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기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참고한다면, 그 답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잉전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령하고 있는 합법적인 자본주의 체제 및 기업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기업과 관련 천잉전은 「워싱턴 빌딩」 시리즈가 반(反)기업적 소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시리즈는 “기업에 반대하는가의 여부

49)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잉전 소설의 기독교적 요소에 관해서는 王貞文, 「陳映眞作品的基督教典故」, 陳映眞等 著, 康來新·彭海瑩 編, 『曲扭的鏡子——關於台灣基督教會的若干隨想(陳映眞的心靈世界)』(台北: 雅歌出版社, 1987) 참고.

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 시대의 자연적 산물이다.”는 것이다.⁵⁰⁾ 또한 사회주의 신념의 위기 직후, 그는 “민주의 문제를 ‘자산계급성’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가 인류의 일종의 진보로서, 그것의 성과가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서 결여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⁵¹⁾ 이 같은 진술은 천잉전의 자본주의에 대한 타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만상제군」에 길게 인용된 천자치 등의 세계 관리 이론은 이들 화이트칼라의 정신적 식민과 별개로 유용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전체 소설 구조에서 볼 때, 리타리우와 치옹라는 답안은 불완전하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당시 천잉전이 사회주의 신념 위기 이후 발견한 “사랑”과 “희망”의 가치가 아직 구체적인 사상적 내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허자오텐은 1980년대를 걸쳐 천잉전이 기독교 신앙과 간디를 통해 이상주의 신념을 재건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 중 후자인 제3세계 시야는 천잉전이 영화 「간디(Gandhi)」(1982) 시청 이후 영향을 받은 것인데⁵²⁾, 「만상제군」 창작 후에 발생한 일이다. 또한 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제3세계에 대한 일련의 글을 발표하게 되면서 천자치 등까지 시야에 둔 제3세계로서의 대만을 사고할 수 있게 된다.⁵³⁾ 그렇기 때문에 1982년 시점에서의 「만상제군」의 리타리우는 치옹을 그리워하며 방황하는 인물로 묘사되었고, 해석의 차원에서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50) 陳映眞, 「企業下人的異化——“雲”自序」, 30쪽.

51) 陳映眞, 「答友人間」, 35-36쪽, 하조전(一)(2010. 11), 72쪽에서 재인용.

52) 陳映眞, 「自尊心和人造愛——電影“甘地傳”觀後的一些隨想」(1983), 『鞭子和提燈』 陳映眞作品集 9(台北: 人間, 1988).

53) 각주 18 참고.

5. 결어

이 글에서는 천잉전의 사상과 문학의 상호 관계를 의식하며 「만상제군」의 식민주의 비판 의식을 면밀히 분석해보았다. 1980년대 초 사회주의 신념의 위기 후 천잉전의 사상들, 즉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 비판, 중국민족주의 등이 때로는 일종의 맹아처럼 결집해 있는 것이 「만상제군」이다. 이와 동시에 작품 내부의 해석 문제, 즉 리타리우와 천자치 등의 불완전한 관계는 다시 당시 천잉전의 사상의 발전 단계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만상제군」 내의 상층과 하층 모두의 정신적 식민 상태를 꿰뚫어 그려낸 것은 천잉전의 식민주의 비판에 구체적인 사상적 내용을 부여해준다. 이 점이 바로 그의 문학과 사상이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설 내용에 대해 평론을 참조하는 도중 일종의 환원적 읽기에 치우친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우침은 분석의 정교함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 것이지, 소설에 대한 세밀한 비평과 그에 대한 사회화 및 역사화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 본고의 의도는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후 연구 과제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만상제군」은 「워싱턴 빌딩」 시리즈 전체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만상제군」의 관리 이론과 화이트칼라에 대한 서술은 「구름(雲)」과도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또한 「만상제군」 창작 시기 가장 선명했던 천잉전의 중국민족주의나 성적(省籍) 갈등 문제는 「야행화차(夜行貨車)」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이 시리즈 내부의 작품을 상호 비교 분석할 때 천잉전의 식민주의 비판 의식은 좀더 전면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의 작품, 특히

「충효공원(忠孝公園)」(2001)⁵⁴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만상제군」이 피식민자의 정신세계 내부를 그려냈다면, 「충효공원」은 그러한 식민 관계를 역사적·지리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효공원」은 친일과 반일이라는 개념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식민주의의 복잡성을 예민하게 통찰해 냈는데, 이 점은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극단적 탈식민화와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분법을 반성하고 있는 한국 내부에도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⁵⁵ 셋째, 천잉전의 잡지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식민주의 비판의 논설은 1980년대 초중반 천잉전의 『夏潮』, 『人間』 잡지와 큰 관련이 있다. 천잉전의 사회 참여적·실천적 성격이 강한 잡지 활동을 연구 시야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그의 식민주의 비판에서 나아가 탈식민적 실천까지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⁵⁶ 마지막으로 현재 대만의 “천잉전 현상”, 즉 천잉전을 둘러싼 치열한 해석들의 대립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서두에서 간단히 언급한 최근의 천잉전 관련 연구 및 활동들

54) 陳映眞, 「忠孝公園」, 『聯合文學』(2001. 7); 陳映眞, 『忠孝公園』 陳映眞小說集 6(台北: 洪範, 2001).

55) 식민(지) 근대성 혹은 식민현대성의 문제의식과 관련된 연구로 다음을 참고하라.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엮음, 도면희 옮김,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서울: 삼인, 2006); 강내희, 「홍내대기와 차이 만들기: 신식민지 지식인을 위한 유령학」, 『흔적』 제1호(2001); 윤건차, 「근대 기획과 탈근대론, 그리고 탈식민주의」, 『문화과학』 제31호(2002). 한편 「충효공원」을 한국의 맥락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는 시도는 崔未順, 앞의 글 참고.

56) 천잉전에게 글쓰기는 자기 해방 및 저항의 행위로서, 탈식민적인 실천성을 갖는다. 천잉전은 1957년 당시 『筆彙』 잡지 편집자였던 친구 웨이텐충(尉天驄)의 요청으로 자신의 영작문을 고쳐 처음으로 문학을 창작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이 같은 우연한 기회 덕에 천잉전은 반공과 백색공포의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 엄청난 해방을 얻었다고 말한다. 陳映眞, 「後街——陳映眞의創作歷程」, 56쪽 참고. 그는 또한 출옥 후 1979년 10월 다시 긴급 체포되었던 경험을 회상하며, 글쓰기만이 자신의 “유일한 저항이자 자기 방어”라고 말한다. 같은 글, 64쪽.

은 단순히 “선행연구”가 아니라, 오늘날의 양안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 점에서 “천잉진 현상” 읽기는 현재 대만의 사상적·문화적·정치적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⁵⁷⁾

참고문헌

- 陳映眞, 『我的弟弟康雄』陳映眞小說集 1, 台北: 洪範, 2001.
- , 『萬商帝君』陳映眞小說集 4, 台北: 洪範, 2001.
- , 『父親』陳映眞散文集 1: 1976-2004, 台北: 洪範, 2004.
- , 『鷺山』陳映眞作品集 8, 台北: 人間, 1988.
- , 『鞭子和提燈』陳映眞作品集 9, 台北: 人間, 1988.
- , 『中國結』陳映眞作品集 11, 台北: 人間, 1988.
- , 『文學的思考者』陳映眞作品集 15, 台北: 人間, 1988.
- 陳映眞等著, 康來新·彭海瑩編, 『曲扭的鏡子——關於台灣基督教會的若干隨想(陳映眞的心靈世界)』, 台北: 雅歌出版社, 1987.
- , 薛毅編『陳映眞文選』, 北京: 三聯書店, 2009.
- 賀照田, 「當信仰遭遇危機——陳映眞20世紀80代的思想湧流析論(一)/(二)」, 『開放時代』, 第11-12期, 2010.
- 陳明成, 『陳映眞現象研究』, 台灣國立成功大學博士論文, 2012.
- 楊小濱, 「批判的主體與主體的批判: 知識分子的反抗與共謀」, 『台灣文學學報』第11期, 2007.
- 呂正惠, 「從山村小鎮到華盛頓大樓: 論陳映眞的歷程及其矛盾」, 『文學的思考者』

57) 이 글의 초고는 2013년 8월 대만 交通大學校 社會與文化研究所에서 작성되었으며, 2014년 9월 29일 상해 華東師範大學에서 열린 「人文亞洲: 文化傳統與現代境遇」 회의에서 「陳映眞小說的新殖民主義批判意識——解讀“萬商帝君”」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거쳐 완성되었다. 논평해주신 毛尖, 倪文尖, 羅崗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陳映真作品集 15, 台北: 人間, 1988.

René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3.

Aijaz Amad, "Literary Theory and Third World Literature: Some Contexts", *In Theory: Classes, Nations, Literatures*, London; New York: Verso, 1992.

위르겐 오스터함멜 지음, 박은영 · 이유재 옮김, 『식민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6.